

## 의예과 의학영어시간을 활용한 의료윤리교육의 효용성

이 정 구\*, 박 근 환\*\*

### I. 서론

#### 1. 의학영어 교육의 중요성

전국의 41개 의예과 과정 중 40개 의예과 과정에서 의학교육에 있어서 영어교육이 필수적인 교과 과정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21개 의예과 과정에서 의학영어과목으로 별도로 선정되어 있다.<sup>1)</sup>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의사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교육 중에 있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우수한 영어실력은 필수적이어서 의예과 입학시험에 영어는 가장 비중 있는 필수 과목이 되었고, 의과대학의 편입학 시험에서도 영어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선발기준에 영어시험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어가 의사들에게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의학과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 중 대부분의 교과서와 참고서적 및 전문잡지가 영어로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모든 공용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학환경 속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외국의 학자들과 자유로이 학문적, 임상적 교류는 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영어회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의학영어는 단지 의학적인 단어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향후 외국 의학 잡지에 영어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외국 의사들과 자유로이 학문적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능력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 의사들

---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신저자 E-mail: [rheck@dku.edu](mailto:rheck@dku.edu)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2집 2002-2003년도. 계측문화사

스스로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배우고는 있으나, 의과대학시절에 배우는 의학교육 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교과 과정을 마친 현 의사들 중에 외국인과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는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정규 의과대학 교과과정, 특히 상대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의예과시기에 이러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의료윤리교육의 중요성

과거에 의료인이 사회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또한 존경을 받던 시대에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도 그 행동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의사들은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많은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다른 의료인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존지 및 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사례비 등의 의료 분배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또한 최근에는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배아복제, 인간개체복제, 유전치료 등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의료윤리학을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넣어 강의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41개 의과대학 중 37개 대학이 의료윤리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4개 대학도 특강이나 통합강의 형식으로 모두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sup>2)</sup> 21개 의예과과정에서도 의료윤리학이 교과과정으로 선정되어 있다.<sup>3)</sup> 그러나 기존의 의료윤리 교육은 관련된 철학적 원칙의 이해, 여러 학과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숙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토론(딜레마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의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sup>4)</sup> 최근 역할극을 활용한 교육과,<sup>3)</sup> 토론회를 활용한 의료윤리교육<sup>5)</sup>이 소개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러한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 맹광호.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의료·윤리·교육 1998 ; 1 : 71-82

3)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2집 2002-2003년도. 계측문화사

4) 맹광호. 앞의 글.

5) 권복규, 장두이. 의료윤리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활용. 의료·윤리·교육 2002 ; 5(2) : 19-30

또한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론적 배경이 없이 곧바로 증례를 통해 접하게 됨으로써 윤리 문제에 대한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게 되고, 임상교육과 의사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로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의대윤리교육은 임상교육을 받기 전에 윤리 전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임상경험을 곁들이는 본과 3학년이나 4학년 시기에 임상 및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sup>6)</sup> 이러한 임상전의 윤리전반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의예과시기에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예과 교과과정으로 영어의료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총 두 학기 동안 의료윤리 문제를 주제로 하여 영어강의, 원어민 영어수업, 영어보고서, 영어발표회 및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수업함으로써 얻어진 교육효과에 대하여 의예과에서 영어윤리과정을 이미 마친 의예과 2학년생, 본과 3학년생, 그리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영어를 사용한 의료윤리교육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생 38명을 대상으로 “영어의료윤리”라는 교과목을 매주 2시간씩 32주간, 총 두 학기 동안 수업하였다. 교과과정이 모두 마친 후 의예과 2학년생에게 본 교과목의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표 1과 같다. 또한 이미 의예과2학년 때 본 교과목을 수강 받은 학생으로서 임상 및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수업을 받은 본과 3학년생 39명에게 의예과 때 받았던 본 교과목의 교육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내용은 표 2와 같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본 교과목을 수강 받은 후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40명에게도(내과계열 20명, 외과계열 20명) 의예과 때 받았던 본 교과목의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와 같이 받은 설문조사 내용을 의료윤리교육 측면과, 영어교육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본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6) 맹광호. 앞의 글.

**<표 1> 의예과 2학년 설문지 내용**

---

1. 의료윤리를 의예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영어로 한 의료윤리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3. 의료윤리의 기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가?
  4. 향후 본과에서 배울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교육에 대비한 충분한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5. 영어로 쓰는 보고서, 시험 및 영어 발표는 유익하였는가?
  6. 영어의료윤리 강의를 통해 본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7. 영어의료윤리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8. 영어의료윤리 교과목이 선택과목이라면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는가?
- 

**<표 2> 의학과 3학년 설문지 내용**

---

1. 의료윤리를 의예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영어로 한 의료윤리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3. 의예과 때 배운 영어의료윤리 과목을 통해 의료윤리의 기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가?
  4. 의예과 때 영어의료윤리를 배운 것이 본과에서 배운 증례중심 의료윤리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5. 의예과에서 의료윤리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배웠다면 본과의 의료윤리 교육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6. 영어로 쓰는 보고서, 시험 및 영어 발표는 유익하였는가?
  7.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강의를 통해 본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8.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수업시간의 영어 강의는 의예과 이후 의학교육에 유익하였는가?
  9.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10.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과목이 선택과목이라면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는가?
- 

**<표3> 전공의 설문지 내용**

---

1. 의료윤리를 의예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영어로 한 의료윤리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3. 의예과 때 배운 영어의료윤리 과목을 통해 의료윤리의 기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가?
  4. 의예과 때 영어의료윤리를 배운 것이 본과에서 배운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5. 의예과에서 의료윤리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배웠다면 본과의 의료윤리 교육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6. 의예과 때 받은 영어의료윤리 수업과 본과의 증례 중심 의료윤리교육이 전공의 때 직면하는 의료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7. 영어로 쓰는 보고서, 시험 및 영어 발표는 유익하였는가?
  8.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강의를 통해 본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9.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수업시간의 영어 강의는 의예과 이후 의학교육에 유익하였는가?
  10.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수업시간의 영어 강의는 전공의시절 학회 참석 및 발표, 영어 논문 작성 등에 유익하였는가?
  11.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12.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과목이 선택과목이라면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는가?
- 

### III. “영어의료윤리” 교과목 개요

#### 1. 교과목의 개요 및 목표

본 교과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윤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철학과 윤리학을 배경으로 해석하며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다양한 사례중심의 영문교과서를 사용하여 의학용어를 익히고 영어의 읽기, 듣기,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기른다.

셋째, 원어민 윤리학 교수의 강의를 포함하여,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여 영어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기르고, 수시로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 및 시험을 실시하여 영어로 쓰는 능력을 기른다.

#### 2. 강의계획표

34주 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루어진 내용의 일부는 표 4에 소개하겠다.

### 3. 수업 방법

수업은 본교 임상교수진의 주제별 강의 (20주), 원어민 의사에 의한 영어강의(8-12주), 의학관련 영어 비디오 관람('Doctor'-자막없이 영어로 1주), 학생들의 영어발표(4주)와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교재는 영어로 된 의료윤리관련 서적들<sup>7)4)-6)</sup> 과 의료윤리관련 영자 신문과 시사 잡지 중에서 선택하여 편집하였다. 강의 방식은 예습과 복습을 강조하였고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의학용어들을 소개하고 의예과 학생들로서는 해당 질병에 관련된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 지식(질병, 처치, 절차 등) 및 윤리적 관점들을 소개한 후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토론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재본문을 모두 읽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주제를 부여하여 영어로 된 보고서(A4용지 2매 정도 분량)를 제출토록 하였다. 영어보고서를 통하여 독해능력과 작문능력을 평가하였고, 두 차례의 영어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말하기 및 듣기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주관식 영어시험을 통하여 과목의 소화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하고 실질적인 의학영어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도록 유도하였다.

### 4. 학습평가방법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주제별 영문 보고서, 영어 발표 및 토론, 시험 및 출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비중을 두었던 주제별 영문 보고서는 윤리적인 논리의 구성과 자신의 의견의 반영의 정도, 완전성, 문장의 문법적 완성도, 전체내용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7) LO B. Resolving Ethical Dilemmas. A Guide for Clinicians.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5 ; Hebert PC. Doing right: A practical guide to ethics for medical trainees and physicians. Toronto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표 4> 영어의료윤리 시간에 다루어진 주제들

---

1. Moral Principle and Ethical Theories(1)
  2. Ethical Principle & Medicine
  3. Autonomy & informed consent and deception in clinical practice
  4. Due care and informed consent
  5. Physician, Patient & others
  6. Doctor-Patient relationship: In Vitro fertilization
  7. Abortion
  8. Reproductive control
  9. Doctor, video movie
  10. AIDS
  11. Euthanasia
  12. Beneficence and the Duty to protect
  13. Pain control
  14. Confidentially and truth-telling in clinical practice
  15. End of life decision
  16. futile care
  17. Principle behind ethically sound medicine
  18. The Art of dying well
  19. Ideal medical delivery system
  20. Gift from patients and others to physicians
  21. Confidentiality and its limits
  22. Virtues and ideals in professional life
  23. Truth, lies, and deception in clinical practice
  24. Sex pre-selection
  25. Due care and informed consent
  26. Human cloning
  27. Duty of care and rescue
  28. Ethical treatment of impaired neonate
  29. Justice in medical care
  30. Conflicts of interest
-

#### IV. 결 과

##### 1. 설문지 조사 결과

##### 1)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평가

응답자수(%)

설문내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의료윤리를 의예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예과2	25(65.8)	7(18.4)	6(15.8)
	본과3	23(59.0)	12(31.8)	4(10.3)
	전공의	25(62.5)	12(31.8)	3(7.5)
영어로 한 의료윤리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의예과2	23(60.5)	10(26.3)	5(13.2)
	본과3	21(53.8)	12(31.8)	6(15.4)
	전공의	24(60.0)	8(20.0)	8(20.0)
영어의료윤리 과목을 통해 의료윤리의 기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가?	의예과2	25(65.8)	12(31.8)	1(2.6)
	본과3	22(56.4)	11(28.2)	6(15.4)
	전공의	24(60.0)	5(12.5)	11(27.5)
향후 본과에서 배울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교육에 대비한 충분한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의예과2	21(55.3)	12(31.8)	5(13.2)
	본과3	20(51.2)	12(31.8)	7(17.9)
	전공의	27(67.5)	10(25.0)	3(7.5)
의예과 때 영어의료윤리를 배운 것이 본과에서 배운 증례중심 의료윤리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본과3	20(51.2)	12(31.8)	7(17.9)
	전공의	27(67.5)	10(25.0)	3(7.5)
의예과에서 의료윤리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배웠다면 본과의 의료윤리 교육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과3	21(53.8)	6(15.4)	12(30.8)
	전공의	20(50.0)	13(32.5)	7(17.5)
의예과 때 받은 영어의료윤리 수업과 본과의 증례중심 의료윤리교육이 전공의 때 만나는 의료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전공의	11(27.8)	16(40.0)	13(32.5)

## 2) 영어 교육에 대한 평가

응답자수(%)

설문내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영어로 쓰는 보고서, 시험 및 영어 발표는 유익하였는가?	의예과2	26(68.4)	11(28.9)	1(2.6)
	본과3	25(64.1)	11(28.2)	3(7.7)
	전공의	30(75.0)	8(20.0)	2(5.0)
영어의료윤리 강의를 통해 본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의예과2	29(76.3)	7(18.4)	2(5.2)
	본과3	27(69.2)	11(28.2)	1(2.6)
	전공의	30(75.0)	8(20.0)	2(5.0)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수업시간의 영어 강의는 의예과 이후 의학교육에 유익하였는가?	본과3	24(61.5)	14(35.9)	1(2.5)
	전공의	26(65.0)	7(17.5)	7(17.5)
의예과 영어의료윤리 수업시간의 영어 강의는 전공의시절 학회 참석 및 발표, 영어 논문 작성 등에 유익하였는가?	전공의	26(65.0)	10(25.0)	4(10.0)

## 3) 영어의료윤리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응답자수(%)

설문내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영어의료윤리 교과목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의예과2	26(68.4)	10(26.3)	2(5.2)
	본과3	25(64.1)	10(25.6)	4(10.3)
	전공의	29(72.5)	10(25.0)	4(10.3)
영어의료윤리 교과목이 선택과목이라면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는가?	의예과2	26(68.4)	11(28.9)	1(2.6)
	본과3	23(59.0)	9(23.1)	7(17.9)
	전공의	29(72.5)	4(10.0)	7(17.5)

##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85% 정도의 학생들이 의예과 때 의료윤리에 대한 주제를 영어로 배우는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료윤리의 기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본과에서 증례 중

심미 의료윤리를 배우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사물과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의예과시기에 의료윤리 문제를 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2) 70%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배웠을 때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아직 영어강의 보다는 한국어 강의에 친숙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7.8 %의 전공의가 의예과와 본과에서 교육받은 의료윤리가 전공의 때 직면하는 의료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함으로써, 의료윤리 교육적 측면에서 본 강의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약 95%가 넘는 학생들이 본 영어의료윤리 교과목을 통해 본인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매주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영문 작성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영어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80%가 넘는 본과 학생들 및 전공의들이 의예과 이후 의학과 교육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90% 정도의 전공의들은 국제학회 참석 및 발표, 영어 논문작성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4) 80%가 넘는 학생 및 전공의들이 의예과 때 배운 본 교과목에 대해 만족하였고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5) 전반적으로는 본 교과목이 영어실력의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의학 및 임상경험이 없는 의예과 학생으로서의 문제에 대한 현실감 부족으로 인해 의료윤리 면에서 깊이 있는 수업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발표 및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관련 서적을 공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 V. 고 찰

우리나라의 의예과 교육은 의학교육의 전단계로 실시되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실시 초기인 1945년경의 의예과 교육목표는 ‘인성교육, 기초의학에 필요한 자연과학을 교육시키므로 보다 의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자질 있는 의학도를 배양’ 하는데 있었다.<sup>8)9)</sup>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성 및 윤리성의 회복, 기초의학에 필요한 첨단과학, 컴퓨터 과학 및 수준 높은 어학과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그 목표가 확대되었다.<sup>9)10)</sup>

---

8) 김용일, 윤성도, 안윤옥, 고윤웅 : 의예과 과정에서 이중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교과목 “의학과 의료(의학개론)”의 개발. 한국의학교육 1993 ; 5: 1

9) 김용일, 윤성도, 안윤옥, 고윤웅 : 의예과 과정에서 이중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교과목 “의학과 의료(의학개론)”의 개발. 한국의학교육 1993 ; 5: 1

주목할 것은 시대가 변하여도 인성교육에의 강조는 변함이 없고, 컴퓨터, 어학 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아직도 목표로만 남아 있을 뿐, 많은 의예과 과정이 자연과학대학에 위탁되어 형식적인 교육만 되고 있어서 의학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준비기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의예과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의견을 보면, 의예과 교육 프로그램과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의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sup>10)</sup> 특히 수준 높은 어학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1990년대 의예과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의예과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sup>11)</sup> 이는 의예과에서 배우는 의학영어 시간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대표되는 언어구사능력을 교육하기보다는 단어중심의 의학용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2)</sup> 또한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대 공용어인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언어구사능력이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많은 의예과 시절에 영어의료윤리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95%가 넘는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80%의 전공의들이 본 수업을 통해 국제학회 참석 및 발표, 영어 논문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의들은 의예과 시절 2학기 동안 매주 20여 편의 영문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전공의 때 영문원고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원어민 영어강의와 학우들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힘들게 발표했던 5 분여의 영어발표 및 토론회 역시 국제학회 참석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의예과 2학년 학생들 역시 본 교과목을 마친 후 영어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보인 학생들이 많아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율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의학, 의료기술 및 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윤리 문제가 점점 큰 의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배아복제, 인간개체복제, 유전치료 등의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의료윤리교육이 시작되어 1994년에 모든 의과대학에서 정규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sup>13)</sup>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1990년 이후부터 의료윤리학을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10) 윤성도 : 의예과 교육 개선 방안. 한국의학교육 1992; 4 : 4-11

11) 윤성도. 앞의 글.

12) 이정구, 정유석, 장용주, 정필섭, 정필상, 박일환. 의료윤리를 의학영어 시간에. 한국의학교육, 1999 ; 11 : 99-106

넣어, 현재 41개 의과대학 중 37개 대학이 의료윤리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4개 대학도 특강이나 통합강의 형식으로 모두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의과대학마다 서로 다른 커리큘럼과 방법으로 교육하여 통일된 교육방법이 아직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의료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일례로 전국 14개 의과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77.2%가 진료 중 의료윤리 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1년에 3번 이상 경험한 경우도 41.8%나 되었고,<sup>15)</sup> 그들 중 대부분은 의료윤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선배의사(44.9%)나 동료들(25.4%)과 상의하여 의료 윤리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 응답자 중 66.2%에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까지의 의료윤리교육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등<sup>16)</sup>은 의료윤리 교과목의 교육 목표로서 단지 윤리의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사고력 증진과 도덕적 판단력의 신장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종합, 그리고 비판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형성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으로서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훈련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능력 향상은 자신들이 한 시민으로서 또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후 어떠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성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력 증진과 문제해결능력의 가장 좋은 수업 방법으로서 '토론 수업'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가능한 반박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전개시키는 수업 방법이다.

본 교과목의 수업방식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단지 의료 윤리적 내용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략히 기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5 %

13) 손명세. 의과대학 윤리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료윤리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1997

14) 맹광호. 앞의 글.

15) 고윤석 등. 우리나라의 병원의료윤리위원회. 의료·윤리·교육 1999 ; 2(1) : 27-42

16) 최경석. 의료윤리 교육과 비판적 사고. 의료·윤리·교육 2004 ; 7(2) : 232-246

정도의 학생들이 의료윤리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5%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의료윤리문제를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학적인 지식과 임상경험이 없는 의예과 학생들에게 한 교육이므로,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본과에서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수업이 동반된다면 교육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3학년 시에 증례 중심의 의료윤리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1996년에 시작된 의예과에서의 영어의료윤리교육<sup>17)</sup>이 본과의 의학교육과정과 전공의 과정에서 계속 의학영어와 의료윤리의 두 가지 면에서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의예과 학생들이 의학본론의 소개도 없이 계속되는 교양과목만의 수강에 거부감을 표시해 28개의 의예과에서 의학개론을 교육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영어의료윤리강의는 각종의 질환소개와 최신의 발전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까지도 함으로서 의학개론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료윤리과목을 충실하게 시행할 때에는 영어, 의학영어, 의료윤리, 의학개론의 4가지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I. 결 론

저자들은 의예과시기에 ‘영어의료윤리’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한 과목으로 영어, 의학영어, 의료윤리, 의학개론의 4가지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는 네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영어교육에 있어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영어구사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전공의 과정과 전문의 생활에 필요한 전문 영어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어 보인다.

17) 이정구, 정유석, 장용주, 정필섭, 정필상, 박일환. 의료윤리를 의학영어 시간에. 한국의 학교육, 1999 ; 11 : 99-106

18)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2집 2002-2003년도. 계측문화사

3)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없는 의예과 학생들에게 의료윤리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과 의료윤리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향후 본과 과정에 배우게 될 증례 중심의 또는 의료윤리교육 본론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교육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과목이었다고 본다.

색인어 : 의료 영어, 의료 윤리

##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Medical Ethics in premedical English class

RHEE Chung-Ku\*, PARK Geun-Hwan\*\*

Both medical ethics and medical English are being taught in most of the premedical courses in Korea since both subjects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in medical education. We have taught medical ethics using English texts in medical English class of premedical course. Students were given tasks of various tests, reports, and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part of the lectures were given in English.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is type of teaching medical ethics in English using questionnaire survey to premedical students,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who have completed medical ethics in English class at their premedical periods. The survey questioned mainly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if they could understand medical ethics and it was helpful in making ethical decisions at their resident time although it was taught in English, if the class was helpful for their advanced medical ethics class at their medical course and making ethical decisions at their resident time, and if the English they have learned in the class has helped their study of medicine through the medical school and resident time.

Most of them responded favorably to all the three questions.

In conclusion, teaching medical ethics in medical English class in premedical course appears to be an effective way of teaching both medical ethics and medical English at the same time.

**Key words** : Medical English, Medical Ethics, Medical Ethics Education

---

\*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Jeju University